



영산강 대탐사 시작

청소년 100명과 일반인 20여명으로 구성된 ‘제11회 영산강 탐사대’가 2일 오전 영산강의 발원지인 담양군 용소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산강 대탐사’를 시작했다. 지난 1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박5일 일정을 시작한 탐사대는 영산강 주요하천을 둘러보고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냉방비 지원 10만원...경로당 에어컨 ‘그림의 떡’

남녀 2곳 한달 비용도 안돼...회비 걷어 가동하기도

광주 68곳·전남 1311곳은 설치 안돼 대책마련 시급

연일 이어지는 가마솥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광주·전남지역 경로당(무더위 쉼터)이 오히려 무더운 공간이 되고 있다.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만 여름철 냉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10만원 안팎에 불과, 이 돈으로는 더위를 식힐 만큼 에어컨 가동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띄엄띄엄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회비를 추가로 걷어 냉방비를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체 경로당은 광주 1297곳, 전남 8861곳으로 이중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은 각각 1229곳(94.8%)과 7550곳(85.2%)이다. 광주 68곳, 전남 1311곳의 경로당은 에어컨도 없이 지난달 중순부터 계속되고 있는 살인 폭염을 맞이하는 셈이다.

그나마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 노인들도 마음 놓고 더위를 식히지 못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모두 여름철 냉방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고작 1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로당 노인들은 10만원으로 무더위가 행위를 떨치는 7월과 8월 두 달을 버텨야 한다.

때문에 상당수 경로당 노인들은 심심일 반으로 회비를 걷어 부족한 냉방비를 마련하고 있다. 일부 경로당에서는 오전과 오후 늦은 시간에는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기도 한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아파트 경로당들은 관리사무소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광주시 북구 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최모(72) 할머니는 “여름에는 경로당만큼 사람이 북적이는 곳이 없다”며 “10만원은 남성 공간과 여성 공간 두 곳의 한 달 비용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경로당 규모와 이용 인원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경로당마다 평균 연 냉방비 10만원, 운영비 130만원, 난방비 150만원이 지원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로당 지원 사업이

지자체 업무여서 정부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에어컨 설치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 달 말 현재 39만5772명으로 전체 인구(190만3692명)의 20.8%를 차지한다.

한편 이날 전남지사는 이날 무안군 망운면 조산경로당 무더위 쉼터를 방문,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무더운 날씨에 논밭에서 일하다가 피해를 입었다”면서 “폭염 때는 시원한 실내 및 무더위 쉼터에서 휴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행기자 golee@·김경민기자 kki@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3
해질녘 19:34
출몰 05:54
몰진 19:42

파부 관리 유의

대기 불안정으로 5~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고기온 26/32	보성	구름많고기온 24/31
목포	구름많음 25/31	순천	구름많고기온 25/32
여수	구름많음 25/30	영광	구름많고기온 25/31
나주	구름많고기온 25/32	진도	구름많음 25/31
완도	구름많음 25/31	전주	구름많고기온 25/32
구례	구름많고기온 24/32	군산	구름많고기온 25/30
강진	구름많음 25/32	남원	구름많고기온 23/32
해남	구름많음 25/32	흑산도	구름많음 24/29
장성	구름많고기온 24/3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파고(m) 0.5	파고(m) 0.5
남부	파고(m) 0.5~1.5	파고(m) 0.5~1.5
남해	파고(m) 0.5~1.0	파고(m) 0.5~1.0
서부	파고(m) 1.0~1.5	파고(m) 1.0~1.5
전남	파고(m) 1.0~1.5	파고(m) 1.0~1.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33	07:45
	14:32	19:50
여수	09:21	03:14
	21:51	15:20

◇주간 날씨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24/33	24/34	24/33	25/32	24/33	24/34	25/34

◇생활지수

	경고
	매우높음
	보통

뇌전증환자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받는다

최근 부산에서 뇌전증(간질) 환자가 차를 몰다 도심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 경찰이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인 뇌전증 환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손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듯 뇌전증 환자 본인 진술이 없으면 면허 취득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국민 우려를 고려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발작 증상이다. 도로교통법은 뇌전증 환자가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정신질환자와 함께 면허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부산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김모(53) 씨는 작년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 약을 복용했으나 올 7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그대로 통과했다. 검사 과정에서 뇌전증 여부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뇌전증 환자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6개월 이상 입원·치료받은 이들뿐 아니라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까지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쪽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뇌전증 장애등급을 받은 이들이 전국에 약 7000명이며, 이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 이후 장애 판정을 받은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작정 확대하자는 뜻이 아니라 뇌전증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더라도 파악해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추가하면 인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물놀이 갔다가...광주·전남 일주일새 6명 숨져

휴가철 폭염으로 광주·전남지역 피서지에서 잇따라 물놀이 사고가 발생, 일주일새 6명이 숨졌다.

2일 광주시·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30분께 구례군 문척면 섬진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모(50)씨가 수로에 빠져 숨졌다.

이씨는 물놀이를 하던 중·고등학생 두 명이 수로에 빠져 허우적거려서 딸들을 구하려고 뛰어들다가 변을 당했다. 이씨의 딸들은 수심 1m이하의 얕은 하천에서 물놀이를 했으나 물놀이공이 물살에 떠내려가자 이를 주우려다가 수로 근처 급류에 휩쓸렸다. 딸들은 물살의 흐름을

타고 몇 분만에 수로 밖으로 빠져나왔만 아버지 이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난 31일 오후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박모(70)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앞선 30일 오후 4시46분께 광양시 옥룡면 한 교각 아래 하천에서는 물놀이를 하

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물에 빠져 숨졌다.

국민안전처는 “하천이나 강에서 8월초 물놀이 사고가 가장 많다. 하천과 강은 물의 깊이가 들쭉날쭉한 데다 물밑 지형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어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더 크다”며 “물놀이 전 준비 운동을 한 뒤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서창농협 24일 조합장 보선

5선 조합장의 불명예 낙마로 공석이 된 광주 서창농협의 조합장 보궐선거가 오는 24일 치러진다.

2일 농협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전임 배인수 서창농협 조합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오는 24일 제13대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전여 임기인 오는 2019년 3월20일까지다. 조합장 선거는 광주 서구선관위가 위탁받아 실시하며 후보자 등록은 오는 9~10일 이틀간이다.

한편 5선의 배인수 조합장은 지난 2014년 이사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농협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직위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종-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